

오늘은 교회 절기로 보면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 성탄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Advent) 즉, Coming ‘온다’, ‘도착한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adventus’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분주해집니다. 아무리 올 해 2021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도 이 맘 때가 되면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은 분주해져요. 이 분주함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바로 대강절 속에 담겨 있지요!

대강절이 되면 교회에서는 매주 한 개씩 총 4 개의 초를 밝히고 성탄절 당일에 가운데 흰 초를 밝힙니다. 그 주변에는 보통 보라색 초 3 개와 분홍색 초 1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강절 첫째 주일 즉, 오늘 켜 보라색 초는 Hope(소망)을 상징합니다. 오늘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뒤죽박죽인 우리 일상에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편지 안에서 그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령이 불타는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우리가 코로나를 비롯한 문제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거든요! 사람 사는 공동체 치고 문제가 없는 곳이 없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그 문제가 심했던 것을 바울 서신을 통해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고린도후서에 나타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박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소위 “눈물의 편지” 라고 말하거든요. 그 문제들 가운데 대표적인 주제가 있다면,

“분열” 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크게 네가지 분열로 인해 갈라지고 갈등했어요. 첫번째는 지도자에 따른 분열이 있었구요(무슨얘기나하면, “나는 바울파다” , “나는 아볼로파다” , “나는 베드로파다” , “나는 그리스도파다” . 많이 들어보셨죠?), 두번째 분열은 부자 교인들의 끼리끼리 의식이었구요, 세번째는 방언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분열이 있었구요, 네번째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의 문제로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사회적 배경이 어땠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사람들은 철학과 수사학을 열정적으로 추구했습니다. 수사학은 라틴어로 [레토리카: rhetorica]라고 하는데, 수사학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중 앞에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영향을 끼치기 위해 언어기법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아테네는 기원전 6세기로 넘어오면서 정치적 지형이 바뀌었어요. 민중이 귀족을 몰아내고 직접 통치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시작을 의미했구요. 법을 만들거나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자유 시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소송이 걸리면 당사자가 직접 대중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했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 말을 잘해서 대중이 자신에게 표를 던지면 자신도 지키고, 대중의 주목을 한몸에 받게 된거예요. 사회 환경이 이렇게 변하자 말을 잘하는 능력은 입신양명의 주요 수단이 됐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영향권에 있던 초대교회들에게도 그 영향이 있었던거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전하면서 장황하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분열”과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크게 네 가지의 분열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첫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지도자에 따른 분열이 있었다고 했지요! 당시 사람들의 관심이 자연히 말을 잘하는 최고의 선생을 찾는데 있었어요. 학생들은 종종 다른 학파의 학생들과 스승들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논쟁했습니다. 이런 풍토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했고, 영적 지도자들을 당시 철학과 수사학의 기준으로 서로 비교하며 불화

를 일으켰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수는 가식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보다는, 인간의 현란한 지혜와 학문을 더 가치 있게 평가했구요, 바울의 단순한 접근보다는 아볼로의 웅변을 선호했던 거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같으나 오직 내품은 참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한 겁니다.

그림이 조금 그려지시지요?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후서에 기록된 그 많은 분열과 갈등과 문제들 속에서도 바른 신앙의 길을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고 나아간 흔적이 고스란히 성경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절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교회 위에 하나님의 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1장 4절부터 9절까지는 감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감사한 내용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이 멈추지 않고, 마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인가 보니까,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멀린 캐로더스의 "Prison to praise"(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감사와 찬송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알콜중독인 아버지를 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모든 중독이 그렇지만, 알콜 중독은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와 아들 내외가 아버지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낙심하는 대신 그냥 감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셔도, 심하게 주정하지 않으니 감사했습니다. 술마시다 쓰러져도 주로 집에서 쓰러지니 감사했습니다. 그냥 보이는대로 느끼는대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가 이렇게 묻더군요. "텔레비전을 보니, 마약중독자도 변화되었다던데, 알콜 중독도 변화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본질적인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릇의 가치는 담긴 내용에 따라 좌우됩니다. 밥이 담기면, 밥그릇이고 물이 담기면 물그릇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모든 현실 또한 받아들이고, 있는 자리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수 안에 없다면 결코 누릴 수 없었겠지만, 예수 안에서 경험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도요!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전히 성도님들 비즈니스도 어렵고, 마음들도 무겁고, 생활에 지장도 많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있을까요? 네! 있어요! 이와 같은 때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와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 둘씩 문제들이 해결되고, 오히려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임재인거죠!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확실히 계시는지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증거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 그 시절에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지! 그렇다면 이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어!”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예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증거를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증거들이 있어야, 우리는 모진 풍파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지켜 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펜데믹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크리스마스가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은 우리는, 코로나라는 환난과 풍파 중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소망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때일수록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감사와 소망과 기다림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번 대강절기를 통해 이루어 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